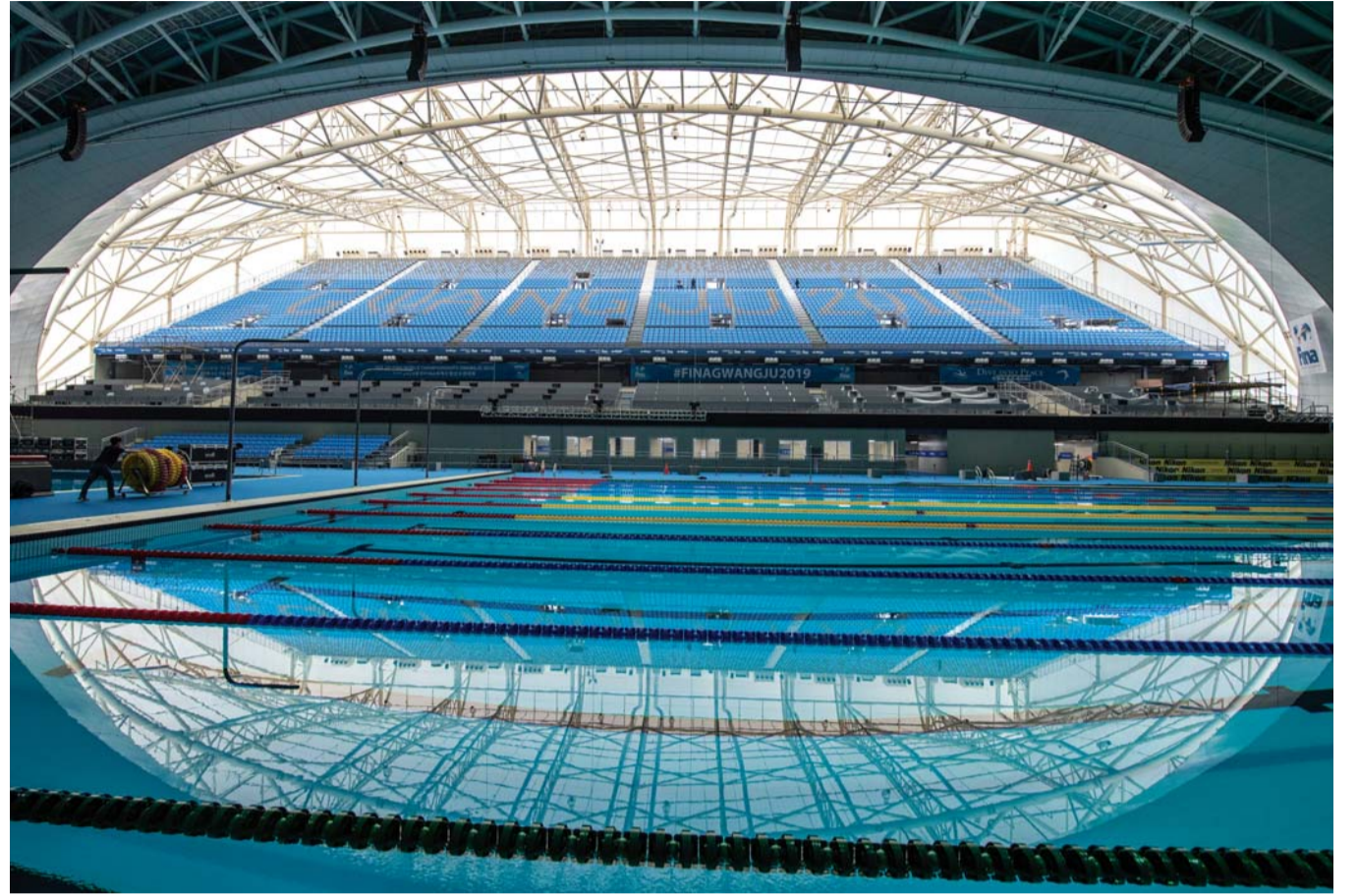


# 다기능 수심조절장치 등 최첨단...최고 기록 쏟아진다



수심 3m까지 조절·스테인리스 수조 누수 발생 없어  
지역 출신 선수 평영 백수연·접영 김민섭 활약 주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전경. 남부대 수영장은 이번 수영대회에서 메인경기장으로 사용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D-7

### ④ 남부대 메인경기장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러지는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을 증축해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한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수영의 꽃' 경영과 보기만 해도 짜릿한 다이빙 경기가 진행된다. 다이빙의 경우 아직 출전의사를 밝히지 않는 북한의 주력 종목으로 선수단의 출전여부에 따라 수영 팬들의 눈길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으로 향한 전망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유산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최첨단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최고 시설과 최상 수질을 통해 기록 산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다기능 수심조절장치, 스테인리스 수조 등 최첨단 시스템

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기능수심조절장치는 수심을 3m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50m 풀을 절반으로 나눠 활용할 수도 있다.

스테인리스 수조는 일반 시멘트 수조에 비해 누수 발생 우려가 적고, 수질 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대회 메인스타이올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기자회견장,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실 등도 설치됐다.

경영 종목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혼영, 자유형 릴레이 등에 걸린 42개 메달을 놓고 물속에서 인간 어뢰가 누구인지 가리는 경기가 숨 가쁘게 펼쳐진다.

주목할 광주-전남 선수는 광주시체육회 백수연(평영)과 여수 문수중 김민섭(접영)이다.

한국 평영의 간판 백수연(여)은 부다페스트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경험을 살려 결승에 도전한다. '포스트 박태환' 김민섭은 최근 열린 국

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경쟁한 실업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이빙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스프링보드,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등 13개 세부 종목이 펼쳐진다.

다이빙은 북한의 주 종목으로 북한 선수가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헝가리에서 열린 부다페스트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김미래, 김국향 선수가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에서 은메달 1개, 김미래, 현일명 선수가 혼성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2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권하림(여·20)의 활약도 기대된다.

권하림은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전 다이빙 여자일반부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3m, 플랫폼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대한민국 의 기대주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문 “한국 AI에 투자를” 손 “세계가 투자하도록 돕겠다”

문 대통령,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90분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한국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을 비롯한 한-일 관계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50분이 나 넘겨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제2번재 봄 가속화를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창업가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시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한국이 인공지능 후발 국가나 한발 한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한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활용 중심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7년 전인 2012년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 손 회장의 아시아수퍼그리드 구상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쪽으로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대통령 지지도 4.8P% 오른 52.4%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7개월여만에 최고치  
“남북미 회동 효과” 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로 올라서며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오른 52.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작년 11월 둘째 주(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1%포인트 내린 42.5%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진보·중도·보수층,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및 수도권, 20·30·5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국정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담 회동 효과로 50% 초반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6%포인트 오른 42.1%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내린 28.2%로, 해당 조사 기준 2월 셋째 주(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 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7.5%, 바른미래당은 0.5%포인트 오른 4.9%,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2.2% 등이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3일 504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입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 ‘한국이 일부 양보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2.0%로 뒤따랐다.

대부분의 연령층과 수도권·호남, 진보·중도층 등에서 두루 국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합뉴스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